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2월 16일(일) 제1528호



“네 이웃을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2025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패션(PASSION)
파워웨이브 학생과 교사, 자원봉사자 2,680명 참석

2025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패션(PASSION)(이하 패션집회)이 ‘Love Your Neighbor’를 주제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이어졌다. 패션집회 1차 1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2차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차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한동대학교 효암캠퍼스에서 열렸다. 파워웨이브 학생과 교사, 자원봉사자 등 2,680명이 참가했다. 2025 패션집회에서는 개회예배, 기도회, 저녁집회, 파워페스티벌, 선택강의, 파송예

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호준 목사 ‘우리가 사는 이유, 사랑’, 최성민 목사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강지영 목사 ‘Walking with GOD’, 이서진 목사 ‘Oasis’, 이상욱 목사 ‘Love is...’, 이정민 교수 ‘Love Your Neighbor’, 이요셉 목사 ‘대면’, 노희태 목사 ‘Walking For GOD’를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선택강의가 풍성했다. FCA(스포츠 선교팀), 김재호(한동대 교수), 이상산(한동

대 교수), 정우성(삼성전자 연구원), 주상현(응급의학과 의사), 조래훈(방송인), 김태희(배우), 김지혜(이화여대 교수), 김권웅(대안학교 교사), 김기호(한동대 교수), 유장춘(한동대 명예교수), 김정주(여성소망센터 센터장), 신혜인(한동대 교수), 이은실(한동대 교수), 장재영(선교사), 강승구(진로코칭), 김정현(벤처기업 전략이사), 좌민기(경영인), 이준철(변호사), 전재영(한동대 교수), 유진상(한동대 객원교수), 민경인(기아대책 전략기획실 과장), 주재원(한동대 교수), 정지성(스타트업 대표), 조석규(국민권익위원회 파견검사), 정희운(CEO), 고준태(소아심장전문

의), 김주형(세일즈, 사업개발), 마민호(한동대 교수), 김세훈(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강의를 했다. 김이음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4부)과 이하은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4부)은 “친구와 추억을 쌓기 위해 패션집회에 참석했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강동하 학생(인천 파워웨이브 2부)은 “요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는데 패션집회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뻐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박지혜 기자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 ‘4 OUR NATION’

2월 28일~3월 1일 서빙고 본당

대학 청년 연합 철야기도회 ‘4 OUR NATION’가 오는 2월 28일(금) 오후 8시부터 3월 1일(금) 오전 5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소속 대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학청년 연합 철야기도회 ‘4 OUR NATION’에서는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담임 목사) ‘나라와 민족’, 노희태 목사(차세대본부장) ‘다음세대와 가정’, 이서진 목사 ‘교회’, 최성민 목사 ‘선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참가신청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서 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울산이여! 열방을 선교하라!”

22일 온누리M센터, 기아대책 주관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

온누리M센터와 기아대책이 주관하는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가 ‘울산이여! 열방을 선교하라!’(시 67:5)를 주제로 2월 22일(토) 오후 2시 울산태화교회 4층(꿈꾸는땅)에서 열린다. 온누리M미션 리더십 및 사역자, 이주민 선교 관련 기관 담당자, 지역교회 리더십, 이주민 선교 헌신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와 김태완 목사(온누리M센터)가 강의하고, 온누리M센터 이주민들이 간증한다.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는 이주민 500만 시대를 사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울산지역 이주민 선교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는 방법 등도 모색한다.

문의: 031-491-965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회선교와 1다락방1사역

2월 25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사회선교 콘퍼런스’

사회선교 콘퍼런스가 2월 25일(화)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온라인(Zoom) 주소는 추후 공지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사회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1다락방1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회선교본부 리더십과 각 공동체 목회자, 대표 장로, 총무와 팀장, 사회선교사역자 등이 참석한다.

최주관 장로 대표기도,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 이해와 1다락방1사역’ 주제 강의, 공동체 1다락방1사역 간증, 질의응답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사데’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데는 산기슭과 강을 따라서 비옥한 골짜기에 있는 도시였기에 무역과 교통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너는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1절).

매우 호된 책망 같습니다. 앞서 나온 교회들과 달리 칭찬 없이 책망부터 주어집니다. 모든 상황과 대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부검하신 뒤에 내린 진단입니다. 사데는 고대에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B.C. 1200년대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도시로서 B.C. 6~7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유적만 남아 있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사데 교회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심하게 받은 두 교회가 ‘사데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있었던 도시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가 유물이 되어 버린 것처럼, 교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 지역 도시가 가진 명성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냉혹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데라는 도시는 에베소나 다른 도시처럼 많은 이교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이 사데 교회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만약 배교가 있었다면 책망이 나올 것이고, 순교가 있었다면 칭찬이 나올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핍박 속에서 순교의 영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책망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된 이들을 단호하게 끌어 내지 못한 책망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핍박에 맞서는 순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핍박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점점 죽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데 교회처럼 되어 가는 교회의 환경을 보면 공통점이 핍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어떤 제약과 불이익도 받지 않는 사회,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상은 죽은 사데 교회가 있는 지역은 모두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핍박이 있는 나라와 사회, 교회들은 존재감도 없고 실상은 핍박에 눌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가 모두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핍박이 없는 지역에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은 첫째, 좋았던 과거에 집착해서 어떤 변화도 거부합니다. 둘째,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해서 그들만의 회회를 추구합니다. 셋째,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때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을 위한 전통을 내려놓고 바른 지표를 언제나 사용합니다. 둘째, 끈질기고 강하게 함께 기도로 연합합니다. 셋째, 아플지라도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데 교회에 대한 평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생명이 살아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생명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뿌리가 끊긴 생명이 죽은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사는 자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 있는 신앙의 특징
깨어 있음, 진정성, 순결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네게 올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2~3절).

살아있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깨어 있음’입니다. 죽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합니다. 우리 삶에 죽음에 휩쓸리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 우리가 소비되는 것,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 방종에 빠지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 하는 것이 죽음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기에 생명이 죽음을 깨워서 남은 것들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진정성’입니다. 사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온전한 이란 진정성입니다. 위선과 가식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은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이나 사람을 의식하므로 가식을 행합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순결’입니다. 사데 교회의 죽음은 ‘더러움’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을 따르는 이들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은밀히 숨어있는 더러움이 있었고, 그 더러움은 누룩처럼 조용히 퍼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데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

어남, 진성성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순결하라고 강조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억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해 보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깨어나면 돌아킬 수 있다.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데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더럽혀지지 않는 사데 교회 남은 자들입니다.

두 가지 약속, ‘흰 옷’과 ‘생명책’

“그러나 사데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4-5절).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흰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흰색은 <계시록>에 자주 나옵니다. 흰 돌, 흰 구름, 흰 말, 흰 보좌는 순결의 상징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순결해야 하는데,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흰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어린양이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필수품은 흰 옷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둘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적은 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억이고, 인정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은 없기에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등록 명부가 아닙니다. 성도 명부에는 이름이 있어도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요? 성도 명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음주

내가 술을 피하는 이유

필자는 대학 시절 허무주의에 빠져 혼돈의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이후 숨 쉬며 살아있음이, 기대되는 미래가 있음이 감사했다. 허무주의에 빠져 힘든 날들을 보낼 때 무기력, 우울, 자살 충동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여러 이유로 혐오했던 술이었는데 유전적으로(?) 몸에 잘 맞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구원과는 무관할 거라며 종종 술을 가까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오솔길을 걷는데 큰 손이 나타났다(손가락이 벽에 글을 쓴 사건이 성경(단 5:25)에 있음을 나중에 알았다). 그 손이 나를 움켜쥐고서 “버려라!”고 명령했다. 내가 “뭘 버려요?”라고 물었을 때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음주였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다.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조심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이후 공부를 마치고 1994년 첫 학교생활을 시작했을 때 특별한 꿈을 되새기며 술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망하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에 격려자 방문하신 군 출신 장관이 마련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리기를 정중히 거절했을 때 겪은 공개적 무시가 가슴에 훈장으로 남아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특히 금전과 관련된 도전들이 나를 갈등하게 했다. 10여 년 전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초빙되었다. 면담 이후 최종 이사 임명 연락을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신임이사 교육 이후 회장님의 초청 만찬이 있다고 했다. 부회장님, 계열사 신임 이사 7명, 지주사 사장님 이렇게 초청되었다. “회장님이 주관하는 만찬이니 분위기를 맞춰달라”는 사장님의 요청이 귀에 맴돌았다. 만찬장에서 만약 술잔을 거절했을 때 회장님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 얼어붙을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다. 몇 날을 기도하다가 설령 잘못되더라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정원에서 밝은 모습으로 한 사람씩 맞이하며 덕담과 함께 술잔을 채워주시던 회장님 앞에 드디어 섰다.

“회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하시던 회장님이 곧 “그래요. 회사를 잘 지켜봐주세요”하시며 모두 만찬장으로 들어가자고 하셨다. 그러시더니 “오늘은 술잔 돌리지 말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따라 마시자”고 하시더니 손수 술잔을 채우셨다. 그 순간 술 문제로 며칠을 고민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고백하건대 필자는 결단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살지 못했다. 하지만 음주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 왜 필자에게 술을 피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

했을 때 몇 말씀이 마음에 화살처럼 쏘였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롬 13:13),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고전 5:11),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고전6:9-10),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엡 5:18),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딤후 3:8),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딤후 1:7),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잠 23:20).

하나님이 음란, 방탕, 호색, 우상숭배, 동성애 등과 술에 취함을 같이 취급함이 충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 모임에서 술이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종종 음란함으로 흐른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엡 5:3)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왜 그렇게 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종종 질문받는다. 필자에게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 술은 일반적으로 음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몸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계 4:8)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하나님

을 경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고전 6:19~20),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술에 취한 행위가 믿는 이의 간증을 손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에 있어서 방해된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롬 14:21). 기분 전환을 위해 마시는 한 잔, 지인들과 모임에서 갖는 가벼운(?) 음주의 습관적 행동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중독일(될) 수 있다. 중독은 불안, 공허함, 허전함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행동을 갈망하게 되는 상태라고 한다. 중독은 종종 죄의 종이 되는 것으로 언급된다(딤후 3:8). 무엇보다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의 조롱받기를 기뻐하며 장차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겠다(눅 6:22~23). 마지막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감히 율통성 있는 사회생활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성태연 집사
(서초C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특별기고

밸런타인데이와 진정한 (희생의) 사랑

밸런타인데이가 단순했던 그 옛날을 기억하는가? 멋진 카드, 꽃, 초콜릿 한 상자 정도면 충분했던. 요즘은 평범한 선물로는 특별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초콜릿과 꽃은 잊어버리세요”라고 ‘투데이’ 쇼는 말한다. 이들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선물 8가지’를 생각해 냈다. 남자를 위한 선물은 하트 모양의 육포 상자나 살라미 꽃다발이다(농담이 아니다). 여성에게는 스파덱스 인조 가죽 레깅스나 풍선껌 색깔 슬립온 스니커즈를 추천한다. 아니면 커플끼리 하트 모양의 외플 메이커나 ‘터치 팔찌 세트’를 선물해 서로에게 ‘진동과 빛’을 내는 디지털 사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스인들이 ‘에로스’라고 부르는 낭만적인 사랑을 상업화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밸런타인데이의 전통에서 3세기 기독교 순교자 로마의 발렌티누스 축일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하다. 발렌티누스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그의 순교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그가 클라우디우스 2세 황제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로마의 남자들은 아내와 가족에 대한 강한 애

착 때문에 군에 입대하기를 꺼린다’고 믿었던 클라우디우스가 결혼을 금지했다. 발렌티누스는 비밀리에 커플들을 결혼시키면서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그 죄로 불잡혀 처형되었다. 그 이야기가 정확히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렌티누스에 대한 모든 고대 기록은 2월 14일을 그의 순교와 희생과 연관 짓는다.

C.S. 루이스가 ‘에로스’라고 부른 낭만적 사

로스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적절한 장소가 있다. 에로스는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을 가리키며, 우리 마음이 더 높은 사랑(아가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사랑을 향하게 한다. 다가오는 사순절은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희생적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성 밸런타인데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경이로움과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랑은 결코 잘못되거나 죄악적인 인간성의 표현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C.S.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도 썼듯이, 에로스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 ‘개인적 행복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두게 한다. C.S.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낭만적인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경쟁자 없이 다스리게 될 때 우리가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될지를 맞보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에

로스 혁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에로스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에로스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했을 뿐 아니라 더는 이타적이지 않고 생명을 불어넣지 않는 수준으로 왜곡했다. 최소한 에로스는 소매업자와 광고업자에게 또 다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최악의 경우 에로스는 우리 문화에 이기심, 피해, 파탄을 가져오는 일종의 돌연변이적 관능으로 변질된다.

밸런타인데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인

생의 즐거움이 감각적인 쾌락이나 살라미 꽃다발, 풍선껌 색상의 운동화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현대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쪼그라든 버전보다 사랑에는 훨씬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성 밸런타인데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경이로움과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내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발렌티누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황제가 무질서하게 만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우리도 발렌티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비슷한 종류의 ‘죽음’이 필요하다. 우리 문화가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는 욕망에 대한 죽음을 포함하는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내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꽃은 잊지 말자.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원문: breakpoint(20200214)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작은 교회 세우는 '가정예배'

가정예배의 유익과 필요성 그리고 노하우

새해에는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새해 다짐으로 운동도 좋고, 외국어 공부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 동역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실천해야 수월하다. <온누리신문>에서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그 네 번째 순서는 '가정예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효과적인 가정예배 드리는 네 가지 방법

가정예배 어렵지 않다. 가정예배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가정예배 현장이다. 이처럼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일관성 있고 진지하게 임하는 게 좋다. 효과적인 가정예배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가정예배 시간을 정한다. 가정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를 가정예배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되도록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가정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기도제목이라도 나누는 게 좋다.

둘째, 찬양과 기도를 포함한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찬양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다. 날마다 찬양을 한 곡씩 정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기도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기도를 드리고, 가정의 기도제목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셋째, 같은 본문 말씀을 읽고 나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본문을 정해서 온 가족이 같은 말씀을 읽고,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게 좋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예배에서 'QT 나눔'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가정의 기념일에는 '특별 가정예배'를 준비한다.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듯이, 가정에서도 기념일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좋

다. 생일이나 명절, 결혼기념일 등 가정의 기념일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가정예배 돕는 도구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싶는데 본문을 어떻게 정하고, 예배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라면 기독교 OTT '풍당'에서 제공하는 가정예배 강의와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부록 'QT로 가정예배'를 활용하면 된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길라잡이 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부모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 등을 참고하면 된다.

<생명의 삶>을 활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생명의 삶>에서는 매주 한 장씩 부록으로 'QT로 가정예배'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본문 마지막 장을 보면 된다. 기도와 찬양, 말씀과 나눔, 감사와 기도 등 가정예배 안내가 잘 되어 있다. 부록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활용하면 가정예배 활용법과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Jean Calvin)은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날마다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중요하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올해는 가정예배로 작은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사역칼럼

정찬희 장로
(가정사역본부)

나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 주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린 기억이 없다.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어느 날부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예배 순서를 준비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리곤 했다. 결혼 이후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은 아내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권유를 많이 했는데, 예배를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게 부담돼서 선뜻 시작하지 못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부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 가족이 드리는 가정예배 전부였다.

내가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

면서 신앙생활을 배웠던 것처럼, 두 아들도 학교 친구들과 함께 교회 친구가 되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집 근처 교회에 다니도록 했는데, 학교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동네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어려웠고, 두 아들의 사춘기와 외국 유학 생활로 인해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는 대로 모습이 아니었다.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귀국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하고 반성을 했다. 그때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만의 예배를 드렸

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주일 중에 하루인데도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고, 본문이 긴 날이면 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통명스럽게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예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가정예배를 지켜나갔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아들은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청년부 공동체에 들어갔다. 주일성수만 겨우 하는 것 같았던 작은아들은 아빠의 신앙 당부에 "나도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아빠처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고백했다. 가정예배를 통한 자녀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제 우리 가족만의 예배가 자리를 잡았다. 자녀들도 가정예배 시간에 맞춰 미리 들어오고, 시작 기도는 작은 아들이, 마침 기도는 큰아들이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가족의 가정예배에서는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을 활용하고 있다. <생명의 삶>에서 제공하는 가정예배 지침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귀한 도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두란노서원에 감사하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가족만의 예배!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사랑부 30년 섬긴 박찬일 교사의 부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교사로 섬겨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사랑부를 30년 넘게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교사가 있다. 박찬일 성도(서빙고 사랑부)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30년 동안 사랑부 아이들 곁을 조용히 지켰다. 빛나기를 원하거나 누군가 알아주기를 소원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부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그의 헌신이 사랑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부모들에게 미소를 되찾아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자그마치 30년이다. 박찬일 성도가 사랑부와 함께한 시간 말이다. 박찬일 성도는 10년의 세 곱절이 넘는 동안 사랑부 교사로 섬겼다. 그 긴 시간 힘든 일이 왜 없었을까. 그럼에도 묵묵하고 깨끗하게 사랑부 교사 그 자리를 지켰다. 장애인사역본부에서 그의 오랜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며 지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그리고 사랑부와 첫 만남

“30년 됐다고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찬일 성도의 오랜 섬김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김준홍 장로(장애인사역본부)의 부탁으로 그를 만났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장애인 사역 30년 공로로 감사패도 받았지만, 그것조차 미안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도 남을 일을 기어이 숨기려는 박찬일 성도의 겸손이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는 거듭 “그저 좋아서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랑부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진정한 헌신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귀한 사랑과 헌신이 사랑부를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알 수 있었다.

박찬일 성도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발을 디딘 건 1987년이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가족들이 온누리교회를 추천했다. 당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의 단정하고 간결한 예배 형식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故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으시고 20~30분이면 끝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온전히 녹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깊지 못해서 빨리 끝나는 설교에 매력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담긴 복음과 영성, 진리를 쫓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누리 영성’에 눈을 떴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했다. 자연스레 세상과 이웃에 눈길을 돌리고 섬김



30년 동안 묵묵하고 깨끗하게 사랑부를 섬긴 ‘박찬일 성도’.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후배가 사랑부를 소개했다.

“형, 온누리교회에 장애인을 섬기는 ‘사랑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한번 와 보면 어때요?”

후배의 권유로 1994년 사랑부에 첫발을 들였다. 그렇게 시작된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이 어느덧 30년을 넘어섰다.

사랑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곳

박찬일 성도가 처음부터 헌신적인 봉사자는 아니었다. 금홍사역을 하고 싶었던 차에 사랑부를 만났을 뿐이었다. 애초에 섬김 대상을 장애인으로 정해둔 것도 아니었기에 사랑부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부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한 주, 두 주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부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저에게 사랑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부 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로 선생님을 때리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예배 중에 난동을 부리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일도 부

지기수였다. 그 힘들고 불편한 일을 겪는데도 사랑부 아이들이 한순간도 밟지 않았다. 사랑부 아이들의 맑은 눈빛만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화가 나곤 했다.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랑부는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다사다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의 눈빛이 정말 맑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치유됩니다. 사실 제가 좀 엄한 선생님입니다(웃음).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했는데, 혼이 나고서도 주눅이 풀리며 다시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며 감동하곤 했습니다. 사랑부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겉모습보다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박찬일 성도와 사랑부 교사들의 사랑 덕분에 사랑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박찬일 성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다고 했다. 자해가 심한 소망이(가명)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상처가 아물면서 딱지가 생기면 또 긁어서 피가 흐르게 만들곤 했다. 다른 교사들은 소망이가 무서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박찬일 성도는 소망이가 자해할 때마다 팔을 꼭 붙들고 훈육했다. 소망이는 엄한 모습을 보이는 박찬일 성도를 무서워했지만, 곧장 잘 따랐다. 박찬일 성도는 늘 소망이의 손을 잡고 함께 다녔다. 그렇게 10년을 싸우고, 웃고, 울고, 기뻐했다. 소망이는 지금 사

랑부를 떠나 예수사랑부(청장년을 위한 장애인 예배공동체)에 있지만, 박찬일 성도를 볼 때마다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한다. 자해 행동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아이들이 더디더라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부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사랑부에서 아이들만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부모들도 변한다. 사랑부에서 신앙 생활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 가득하던 부모들의 표정이 변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를 만나기도 한다. 희망이(가명) 엄마도 그랬다. 희망이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였다. 주말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맡기려고 사랑부를 찾았다. 사랑부 예배에 아이만 맡기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사랑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희망이 엄마의 마음이 열렸다. 오랜 시간 교회 울타리를 넘지 않았던 희망이 엄마가 예수를 만났다. 교회에 등록도 하고, 일대일제자양육도 받았다.

“사랑부에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과 가족의 변화입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우울과 불안 등이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부 아이들이 가족을 전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랑부는 아이들의 삶과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곳입니다.”

박찬일 성도는 사랑부 교사로서 깊은 고민이 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아이들이 자립하도록 교회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매일 생각하고 또 기도한다. 그 깊은 고민 끝에 박찬일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다.

“사랑부 아이들도 잘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립하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교사로 섬겨 주십시오. 장애인 사역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존엄성을 지향하도록 사랑부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문의: 010-3597-7152(장애인사역본부 팀장)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폴란드 교육자 ‘야누시 코르차크’의 하나님만 붙든 삶



최민혜 성도
(부천온누리교회,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1980년에 시작된 나의 ‘초등학교’는 뭔가 잘못했을 때 30cm 긴 자로 손바닥을 맞아서 아픈 곳, 선생님 심부름으로 과학실에 뭘 가지러 갔다가 그것이 어딘는지 못 찾아서 어쩔 줄 몰라 한참 숨어있던 곳이었다. 그래서 나의 초등학교 시절을 색

으로 표현하면 아주 짙은 검회색 같았다. 그러다 6학년이 됐을 때 ‘서정희 선생님’을 만나면서 나는 병아리처럼 아주 밝고 예쁜 노란색을 경험하게 됐다.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수학교 정말 쉽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공부를 어려워하던 친구들을 가르쳐 주거나 선생님의 일을 도와드렸고, 선생님은 그런 나에게 가끔 학교 바로 앞 문방구에서 파는 떡볶이를 사주셨다. 그래서 나는 장래 희망을 정했다. 선생님. 나는 그렇게 한결같은 장래 희망을 품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했고, 오래 기다려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일이라는 게 보통 경력이 쌓이면 쉬워질 법도 한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렇지 않았다. 뉴스에서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보도되지만, 그게 언제 해결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교사가 된 지 9년이 됐을 때 ‘일단 내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만이라도 잘해 보자’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초등교육’을 전공했다. 그리고 졸업 논문으로 폴란드 교육자인 ‘야누시 코르차크’에 관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실마리를 찾았다.

유대계 폴란드인 야누시 코르차크

야누시 코르차크(Janusz Korczak, 1879~1942, 이하 코르차크)는 유대계 폴란드인 교육자이다. 교육자 이전에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 <카이투스>등을 집필한 작가이면서 인기 있는 소아과 의사였다. 또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어린이신문>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도 했고, 보육원에서 어린이 법정과 어린이 의회를 운영하며 아동 인권 존중을 몸소 실천했다. 코르차크의 아동 인권 존중은 이후 아동 인권 협약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출생 100년이 지난 1979년은 ‘아동의 해’, ‘야누시 코르차크의 해’로 선포되기도 했다.

30년 동안 200명가량의 고아가 있는 보육원 원장으로 살아간 코르차크의 치열한 삶,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본인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가스처형실로 끌려가는 고아들과 함께 마지막 기차에 오른 그 숭엄한 죽음은 언제이



루지츠카 기숙사에서 고아원 어린이와 야누시 코르차크.

“코르차크가 그 치열하고도 전쟁 같은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이었다면,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 돌아본다.”

바이다 감독 영화 <닥터 코르작(KORCZAK)>에서도 볼 수 있다.

코르차크를 연구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영화 같은 삶을 살 수 있지?’였다. 코르차크는 부유한 어린 시절에도 가난한 길거리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정신질환으로 돌아가신 이후 학생 시절부터 과외와 글쓰기를 하며 가장 역할을 감당했다. 코르차크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도 가난한 이들의 진료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 먼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된 일은 1911년 유대인 고아들의 보육원 ‘돔 시에로트(Dom Sierot, 고아들의 집)’ 원장 제안을 수락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코르차크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의사가 되고, 글을 썼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일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30년 그의 일생을 아이들을 위해 바쳤다.

코르차크가 운영했던 보육원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일반 가정보다 좋다고 느낄 정도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아이들의 문제는 교사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만든 규정을 따라 어린이 법정에서 해결되거나 처벌되었다. 코르차크는 매주 토요일 직접 아이들의 체격을 측정하고, 청진기를 대고 진찰했다. 밤이면 아픈 아이를 바로 곁에 재우면서 보살폈다.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

2차 세계대전 당시, 코르차크와 그가 돌보던 고아들도 유대인들을 가두는 장벽 ‘게토’(ghetto) 안에 갇히게 됐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그는 어깨에 냄바를 두르고 여기저기 사람들

에게 음식과 돈을 구하고 다녔다. 코르차크는 언제나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의 아버지였다.

코르차크가 한결같이 낮은 자들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헌신하면서 본인의 표현대로 ‘자신만의 우물을 파는 삶’을 사는 데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 코르차크는 매일 자정이 될 때까지 혹은 자정을 넘어서까지도 아이들이 모두 내려다보이는 방에서 외로운 시간을 가졌다. 그는 거기서 기도하거나 글을 쓰기도 하고, 보육원에서 함께 아이들을 돌보던 스테파 부인과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다. 코르차크가 집필한 <홀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집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찬양했는지 알 수 있다.

“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렵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요, 제가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하려 한다는 것을.”

코르차크는 게토 안에서 죽음을 향해가는 시간에도 마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기를 써갔다. 만일 코르차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단단한 끈이 없었다면 전쟁과 죽음의 그 처절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집중해서 연구했던 코르차크의 교육적 측면을 보면, 그의 말과 교육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전혀 낡설지 않다. 지금도 인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귀 기울일만한 내용이다.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로, 참나무는 참나무로, 영경귀는 영경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그 영혼에 잠재된 것을 깨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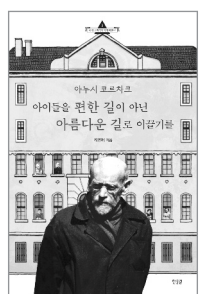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목표를 갖는다. 이런 성격에, 이런 외모에, 이런 대학과 직업을 갖길 바란다. 하지만 내 아이가 풀인지, 꽃인지, 나무인지, 그 고유함을 잘 파악하는 것,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아차리는 게 자녀 교육의 시작 아닐까? 아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은 꼭 사춘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부모도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그 걸 함께 찾아갈 때, 아이는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것에 아주 잘 맞는 꿈을 꾸며 노력하게 된다.

“아이와 사귀고, 아이와 잘 알며, 아이에게 호의적으로 남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교육자이다.”

나는 코르차크의 이 말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은 아이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바로 그 내용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와의 관계가 세워진 뒤에야 배움이 일어난다. 아이는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후부터 잘 배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와 천천히 사귀면서 그 너머에 숨어있는 아이의 속마음까지 알게 되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교사를 신뢰하게 된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하면, 아이는 자기만의 꽃을 피운다. 이렇게 아이와 사귀고 알아가고 함께 하는 것이 부모님과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코르차크는 200명가량의 고아와 함께 지내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 그의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년은 그가 나이가 차서 떠날 때 코르차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이 아니었다면 나는 세상에는 절대로 흠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나 역시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코르차크가 그 치열하고도 전쟁 같은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이었다면,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 돌아본다. 나의 어려움도, 부족함도, 아픔도 모두 알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지치지 않으며 순종하기를 다짐해본다.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 최민혜 저 / 한울림

맛있는 말씀 해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롬 11:5)

은혜는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종종 우리는 이 단어를 ‘자비’와 혼동해서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정의상 분명히 다르다. ‘자비’란 받아야 할 벌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이 심판이나 정죄를 유보하시는 것이다. 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한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5절을 언급하기 전에 엘리야 이야기를 인용한다. 이 시기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일과 똑같이 바울의 시대에도 유대인 중에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이 있다. 하나는 ‘은혜로 선택을 받아’(κακῶς νηχάτω, 카트 에클로겐 카리토스)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사람’(λεμμα 레임마)이다.

첫 번째 표현 ‘은혜로 선택을 받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주권적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주심으로 써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다.

두 번째 표현 ‘남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살려 두신 무리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하나님이 떠나 있었을지라도 신실한 무리가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늘 남은 자들을 보존

하셨고,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는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이 별도로 마련하신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일쑤였던 옛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분의 백성을 지키신다. 현대 사회가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 엘리야 시대와 바울 시대에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불러 주신다.

결국, <로마서> 11장 5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 주권을 선포하는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은혜로 선포하신 본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준다.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것은 우리의 어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남은 사람’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은 결코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심으로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남은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한다.



김태광 목사
(W청년부)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새 계명과 또 다른 보혜사

2월 17일~2월 23일까지
〈요한복음〉 13:12~15:8



묵상포인트

1: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자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자.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는 제자들도 그렇게 섬기도록 본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하신다. 그가 누구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딱 한 조각을 적셔 유다에게 주시며 그의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간 뒤에 남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계속 강론하신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 것이다. 베드로

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단언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예고하신다.

묵상포인트 2: 〈요한복음〉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한다. 영이신 성령은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며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함께하신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최고의 교사로 오신 성령을 갈망하며 묵상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다.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신 뒤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도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그분을 믿는 이는 그분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포도나무가 되신다. 모체에 맺줄로 연결되어야 태아의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생명을 얻고 열

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묵상하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살라질 뿐이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몸과 마음을 낮추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 등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하자. ▶예수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회를 주셨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자.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바꾸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실천하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가지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A국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정은 약 8개월 전에 서남아시아 A국으로 이동해서 현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A국 K 도시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 교회를 돕기로 결단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월 마지막 주일에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 예배와 중보기도, 중식과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은 격려와 위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부족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무슬림과 힌두교 어린이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전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월부터 시작할 유치원 과정도 무탈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제이 쿠마르’라는 어린이에게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제이 쿠마르 어린이의 아버지가 6개월 전 세상을 떠나 어머니가 농장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비제이 쿠마르 어린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저희 부부가 건강과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쏘냐 선교사의 무릎과 어깨 통증, 이바나바 선교사의 허리통증과 무릎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바나바, 장쏘냐 선교사(서남아시아 A국)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성경적 태교

“임신 중인 크리스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태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은 온 집안의 축제다. 새 생명의 출현은 가정과 가문에게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새 생명은 부부가 하나 되어 이룬 사랑의 결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생명을 주신 분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크리스천 부모의 성경적 태교를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시편〉 139편 13~16절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너를 창조하시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가 이 땅에 오도록 통로 역할을 했지만, 부모의 생명과 DNA도 하

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아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믿고 맡기신 생명이다. 그래서 태교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다.

둘째,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다. 아빠가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위해 매일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쓰담쓰담하고, 사랑을 속삭일 때 태중 아이는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낀다. 이 과정

가 섞인 말을 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사랑한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다. 지금 힘들지만 잘 살 수 있어 힘내!”라고 격려하고, 실수가 있을 때는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새 역사를 써가는 생명의 가정이 될 것이다. 생명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태중에 있는 태아도 감사하지 않겠는가!

셋째,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에 휘둘린 태교와 자녀 양육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문화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에 기초를 둔 교육과 자녀 양육 준비가 필요하다. 진정한 안식과 평강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느낄 수 있다. 임신부 내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태중에 있는 아이도 동일한 상태가 될 것이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는 산고의 고통이 따른다. 산모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도 좁은 산도로 나와야 하기에 같은 고통을 겪는다. 산고의 고통 이후에는 그 고통보다 큰 기쁨이 있기에 넘어설 수 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트리는데 그 순간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생명을 청지기로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감사기도를 드리자. 기도하고, 가족들과 수고에 대한 격려와 축하를 하는 순간이 그 아이가 태어나고 드린 첫 예배가 될 것이다.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생명을 청지기로서 잘 키우겠습니다”**

은 아이가 세상에 나와 살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 아빠와 엄마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한 구절을 들려줄 때 부모와 아이가 영적 흐름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곧 성령님과 만남이 될 것이다. 아빠와 엄마가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깊은 친밀함의 사랑을 나누는 게 그 어떤 태교보다 중요하다. 아이가 태어남으로 가정의 패턴을 새롭게 써가는 기간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온다. 짜증, 질타, 부정어

신 기간에 QT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을 매일 낱씨에 맞춰 하루 한 장씩 읽는다면 말씀이 내면화돼 삶을 이끌 어갈 것이다. 이는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넷째, 산모는 충분한 수면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출산을 위한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과 진료, 출산 이후 회복을 기도하면서 세속에 편승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임신, 출산 후 스쿨(온누리교회 헬로맘)’을 통해 성경적 태교를 접하는 것도

정주호의 ‘홀리바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聖殿)이다. 간혹 몸은 썩어 없어질 육체이고, 이 땅에서 잠시 입고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게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드신 게 바로 우리의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몸’을 회복해야 한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강건할 수 있고, 마음이 강건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도 고통 속에 있게 되고, 고뇌와 근심으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건강을 잃게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혼 또한 몸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몸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며, 영혼도 몸과 마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전 된 우리 몸이지만, 나이 들수록 몸을 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치기가 심상이고, 한번 다치면 회복도 더디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곧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무리하고 혹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40대까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요소가 건강을 좌우한다면, 중년 이후로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후천적 요소가 몸의 상태를 책임진다. 대부분의 사람이 청년기에는 물려받은 건강만 믿고 몸 관리하지 않는다. 그 상태로 중년을 맞이한다. 그 때문에 40대부터 10대 성인병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은 여생을 위해 가족, 재테크, 여행 등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로 꼽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건강이 없다면 노후의 소중한 시간을 여행이나 가족을 위해 보낼 수 없다. 만일 우리의 육신(몸)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고 영혼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폭식하고, 과로하고, 성인병에 걸리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몸을 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 동안 최선을 다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육신에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몸은 단순한 육신의 ‘몸’이 아니다. 성령님을 나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며, ‘교회’인 것을 깨닫기를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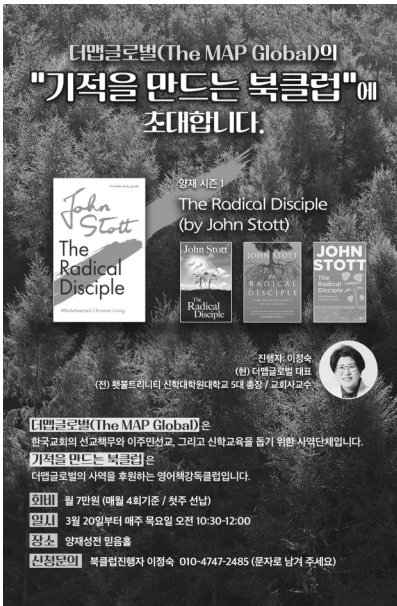
정주호 대표
(스타트레인,
재활과학박사)

영어책 읽으면서 이주민 선교 돕는다!

영어책 강독 클럽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영어책 읽으면서 이주민 선교 돕는 방법이 있다. 더맵글로벌(The Map Global, 대표 이정숙 목사)에서 주최하는 영어책 강독회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에 참가하는 것이다. 3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영어책 강독회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에서는 복음적 신앙과 영성 관련 영어 서적을 읽는다. 이정숙 목사(더맵글로벌 대표)가 인도한다. 강독회는 인도자가 책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단어, 표현 등을 설명하고 신학적인 의미도 해설하며 읽어나간다. 이번 강독회에서 읽을 책은 로

잔운동을 시작한 존 스토틀(John Stott) 박사의 유작 <The Radical Disciple>(IVP, 2010)이다. 회비는 매월 7만 원(월 4회 기준)이다. 예습, 발표, 숙제 없이 영어 실력과 영성을 조금씩 높이고 싶은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영어책 강독회를 주최하는 더맵글로벌은 KGMLF(Korea Global Mission Leaders Forum, 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와 이주민 선교, 이주민들을 위한 신학교를 돕는 사역단체다.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은 더맵글로벌의 사역을 후원한다. 문의: 010-4747-2485(문자)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미션퍼스펙티브스’ 1기 모집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대전온누리교회

대전온누리교회에서 ‘미션퍼스펙티브스’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미션퍼스펙티브스’는 세계기독교 운동을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16일 한철호 선교사의 주일설교를 시작으로 6월 22일까지 12주 동안 이어진다. 주중에는 영상, 주일 오후 5시에는 소그룹 나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착순 50명

을 모집한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별도).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정신을 이어 받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3526-475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청춘클래스 11기 참가자 모집

3월 15일과 22일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청년들에게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알려주는 청춘클래스 1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5일(토)과 22일(토) 오후 12시 30분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 16일(일)까지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식식 포함)이다. 청춘클래스 11기에서는 개그맨 조래훈이 사회를 보고, 최성민 목사대

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 연애 노하우’, 개그맨 오지현 ‘크리스천의 행복한 이성 교제’를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 이후에는 3대3 대화(15일), 1대1 대화(22일)가 이어진다. 청춘클래스는 2021년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31커풀이 탄생했고, 올해 8커풀이 결혼할 예정이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모집

경제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웃 돕는 사역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119는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을 돕는 사역이다. 전문 기관과 함께 성도들이 건강한 재정관과 재정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에서는 ‘기독교 정의와 부채담감의 성경적 의미’, ‘부채에 대한 이해’, ‘많은 채무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법’, ‘많은 채무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5550-3655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훈련생 모집

3월 4일~4월 29일 매주 화요일 서빙고 성가대실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8만 원.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소망을 전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김재석 목사, 김해지 전문의, 김도봉 목사, 김기철 교수, 최지은 선생, 이혜원 팀장, 한형숙 간호사, 윤명례 원장 등 호스피스 전문 강사 8인이 강의한다. 문의: 010-3412-7966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2월 16일 오후 3시 30분 양재 드림홀

강남A	김진우	나종희	강남E	과천의왕	신진아	서초D	진대환
강현미	박정원	임찬양	강새라	박은주	박은주	박성렬	최은정
김성수	장은영	채연웅	김명지	분당B	이세나	이영민	양재B
손지희	전종화	최정윤	김용운	도곡	박인순	송파A	박용환
안경숙	강남C	강남D	김해연	신석현	서초B	박철우	성경호
오옥근	강나리	김상범	장성준	이신연	김미정	송파B	푸른누리
유혜령	김경리	오석경	조금옥	양아름	김지영	정홍철	안광일
이세훈	김나영	이주은	허영수	분당A	이현아	양재A	
주대권	김나정	정아람	경기A	김재철	최영실		
강남B	김정현	황다슬	채희열	박영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빙하의 일각’ 언어편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빙하의 일각-아와수업’ 언어 편이 공개됐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빙하의 일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남아있는 빙하시대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콘텐츠다. 창조과학자 이재만 선교사가 강의한다. ‘빙하의 일각’ 마지막 주제는 ‘언

어’다. 빙하기를 지나며 자연계에 격변이 일어났듯이, 언어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빙하의 일각 언어 편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지를 세세하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창세기>의 언어와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시대에 따른 언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여성자립캠페인’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참가신청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르완다 여성자립캠페인’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여성자립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나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르완다 여성자립캠페인에서 모은 후원금은 르완다 국빈 여성가장 7명을 돕는다. 국빈 여성가장 7명은 농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했는데,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의 도움으로 재봉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장난 재봉틀 수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번 캠페인 후원금으로 노후된 재봉틀 수리 비용과 수선 기계 구매를 할 예정이다.

문의: 02-2271-2248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캐세리 장로교회 아이들 후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해 실시한 ‘남수단 성탄 선물 캠페인’ 후원금으로 남수단 캐세리 장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130명에게 티셔츠와 바지, 신발과 가방 등을 선물했다. 정은희 선교사(남수단)는 “아이들

이 선물 보파리를 받고 정말 행복했다”면서 “남수단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회복사역 ‘엘라이프’ 참가자 모집

회복사역본부 ‘엘라이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일(토)부터 4월 1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2월 26일(수)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9만 원(매주차 인바디,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비용 및 외부 리프트 비용 포함)이다. 문의: 02-3215-3532

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구약) 참가자 모집

서빙고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구약)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 담당)가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3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3만 원.

본부 136기 두란노어머니학교 모집

본부 136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6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기도하는 어머니’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 새가족 수료 간증



/ 이진현 성도(마포공동체)

드디어 회복된 ‘나의 예배’

"여보, 화장 빨리 좀 하자!"
주일예배까지 1시간이나 남았고, 교회까지 자동차로 15분이면 충분한 거리다. 하지만 본당 앞자리에 앉기 위해 서두르는 내 마음과 달리, 차분히 준비하는 아내를 재촉하는 것이 요즘 주일 아침 일과가 되었다. 한번은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본당에 자리가 없어 부속 예배실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여보, 다음 예배 드리러 가자"라며 예배당을 나와 다음 예배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된 것이 마치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3개월 전만 해도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옷을 고르고 있었다. 일부러 늦게 가서 본당이 아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계산된 늦장이었다. 아내와 함께 화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갔다.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예배 시간 내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낙이 된 불량한 예배자였다.
2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는 그저 교회 사람들과 교제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 같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세가 습관이 되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

행히 하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을 가만두지 않으셨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 20년 다닌 교회를 떠나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도착한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첫 느낌은 마치 그리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배 봉사팀의 따뜻함과 은혜로운 오케스트라 선율에 눈물이 흘렀다. 코끝에 전해지는 교회 냄새와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마음이 무너졌다. 주를 향한 찬양사역팀과 함께 부르는 찬양, 불편한 몸으로도 축복해 주시는 권사님, 목사님의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말씀까지 예배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 굶었던 예배는 회복되었고, 드디어 예배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예배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이 질문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마치 소설 <마지막 수업>에서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찬양 한 구절, 기도 한 마디, 말씀 한 절이 모두 가슴 깊이 새겨졌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처음 예배의 감격을 간직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한다.

■ 이주민 설 집회 참가자 간증



/ 칼리몰린 이스칸데르 형제(안산M센터 러시아예배)

내 삶을 변화시킨
‘아버지학교’

오늘날 많은 가정의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 이는 가족 간의 불화, 자녀의 방황,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잊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안산M센터 러시아예배에서 개최한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가했다. 이번 두란노아버지학교는 한국의 명절인 설날에 진행돼 더욱 뜻깊었다.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명절에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민 설 집회로 진행된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나는 남편으로서, 미래의 아버지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배웠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실천임을 깊이 느꼈다. 강의마다 강

사님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정의 본질과 아버지의 역할을 설명하셨고, 그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다.
특히 실천 과제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는 등의 과제들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 실천을 통해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많은 사역자와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운영해 주신 모든 관계자,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강사님들, 함께 배움을 나누는 동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다.

■ 135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간증



/ 송미정 성도(의암교회)

온통 분홍빛과 만남

두란노어머니학교 포스터처럼 교실의 책상, 우리를 반기는 스태프들의 의상, 테이블보, 꽃 등이 온통 분홍빛이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친하지 않았던 분홍빛과 만남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로 작정하셨나 싶었다.
나에게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소개해 준 분이 스태프로 섬기고 계셨다. 직장 동료로 만난 그 자매님은 직장을 넘어 나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 멋진 선배님이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을 때 무조건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다. 그 선배님이 원하는 것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강의에서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성경적 여성관을 배웠다. 그 강의는 그동안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게 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가치관을 따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는 '행복한 아내가 따뜻하고 온유하며 안정된 심정으로 자녀에게 건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다양한 숙제를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다. 지나온 삶 이야기들을 적으면서 안쓰럽고 서

글프고, 아팠던 나와 직면했다. 그러면서 나의 시작은 흑암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행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와 남편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에서는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나에게 당신의 유전자를 남겨주신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여행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이 보여준 순도 높은 사랑을 돌아볼 수 있었다. 또 자녀들의 장점과 사랑스러움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멋지며,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두란노어머니학교 숙제라며 발을 씻겨 주는 일은 생각보다 쑥스럽고 어색했다. 그렇지만 참으로 이름답고 숭고한 의식 같았고, 엄숙함이 있었다. "당신이 오래 참고 견뎌줘서 감사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해할 때가 좋아"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나는 참 오만하고, 성내기를 잘하는 아내였다. 청잔에 아박한 엄이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통해서 어리석고 부족했던 나를 점검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 어머니들이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 양재 와이미션 참가자 간증



/ 유진희 성도(서초D공동체)

내 마음에 들어온 ‘선교’

누군가 나에게 선교에 관해 질문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선교를 마음에 품은 남편을 만나면서 선교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렇게 선교를 마음에 품고 아웃리치를 몇 번 다녀왔는데도 선교가 여전히 막연했다.
이 상황을 아시는 순장님 부부가 내게 와이미션 과정을 추천하셨다.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와이미션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서 참가를 고민했다. 그때 감사하게도 조장님이 오가는 길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와이미션 과정에 참가할 수 있었다.
와이미션 수업을 들으면서 선교에 대해 막연했던 생각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와이미션 2주 차에 들었던 최음 선교사님의 "선교의 시작은 신앙의 전수부터"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 임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매우 큰 일이고, 임신이 선교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임신 준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게 옳다는 확신이 들었고, 감격스러웠다.

와이미션 과정에서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인 'Acts 29'를 살아낸 전 세계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이용규 선교사님의 시대에 따른 선교 역사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선교 대상을 국가보다 종족으로 해야 하는 이유와 선교지로 많이 알려진 곳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배웠다. 또 선교에서는 순교가 빠질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직면했다. 무섭기만 했던 순교 뒤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다시 보게 되었다.
매주 배운 내용을 남편에게도 전해주었다. 남편과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지금 남편의 마음과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게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에 와이미션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INTERNATIONAL NGO

더멋진세상

여성자립캠페인

재봉틀이 망가져서 일감이 자꾸 줄어요.

임하노 디자인은 르완다 극빈 여성 가장 7명이 '생계 자립'을 위해 스스로 만든 재봉 조합입니다. 이 여성들은 그동안 농장 일용직으로 일하여 생활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멋진세상을 만나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계 노후화로 인해 7대 중 절반 이상이 고장 나면서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수입이 줄어 기계 수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임하노 디자인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세요.**

지원 대상 임하노 디자인 재봉 조합 (7명의 극빈 여성)
지원 내용 재봉틀 수리, 수선 기계 구입, 재봉 부자재 구입
목표 금액 \$3000



스토리보기



후원하기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 의 02-2271-2246(내선 0번)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